

금융당국·증권가 책임 어디까지… 레버리지 ETF 국감 간다

오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ETF 도입·규제 과정 집중 검증
ELS 과정금·홈플러스도 검증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오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이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을 묻는 전초전이라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증권사·자산운용사의 판매·운용 책임까지 검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홍콩 H지수 주기연계증권(ELS) 과정금과 홈플러스 유동화 전지단기사채(ABSTB) 등이 주요 자본시장 현안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외 상품과의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해외 투자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는 취지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



국회를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를 뜻하는 '2X' 레버와 금등락 차트를 배치해, 국정감사에서 상품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이 검증대에 오르는 상황을 표현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F의 상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시장 과열과 투자자 쏠림 우려가 커지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신규 상장과 마케팅을 중단하고 기본예탁금과 교육 요건 등을 강화했다.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전 자금 쏠림과 반복적인 리밸런싱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충분히 분석했는지 집중

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스스로 음의 복리효과와 손실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던 만큼 위험을 알고도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 이유와 초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절했는지도 쟁점이다.

정책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상품 출시 이후인 5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홍콩 상장 삼성전자·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 매수결제액은 3억2142만달러로, 출시 직전 3개월간의 3억946만달러보다 줄지 않았다. 해외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기보다 국내에 새로운 고위험 투자 수요만 만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4조원 피해'의 산정 근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의 확정 손실과 평가손실, ETF 순자산 및 기초자산 시가총액 감소는 구분해야 한다.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는지를 두고도 대의 여건과 상품의 리밸런싱 효과를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금융당국 수장들의 책임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시작된 공방이 국정조사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참고인 출석 요청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곳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국감 전에는 변수가 많고 당일에도 참고

인 출석이 취소되거나 예상했던 주제가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동향을 지켜 보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며 상품 도입 협의 과정과 거래 현황, 투자자 손실 및 사후 규제 조치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정금이 당초 거론된 약 4조원에서 약 6000억원으로 줄어든 과정도 검증 대상이다. 국감에서는 과정금 감액 근거와 금융회사 제재 기준의 일관성·실효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MBK과 트너스의 책임과 함께 홈플러스 유동화 ABSTB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다. 금감원이 지난 7월 MBK 제재 심의를 마친 가운데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판매사 제재와 투자자 분쟁조정의 진행 상황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 S&P500·미국채 반반 ETF 상장

성장성·안정성 동시에 추구
DC·IRP 계좌서 100% 투자 가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8일 'TIGER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진존만기 1년 이하 미국 국채에 각각 50%씩 투자한다. 'S&P500 and Short-Term Treasury 50/50 Blend 지수'를 추종한다.

김동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ETF운용본부장은 이날 열린 상장 기념 웹세미

나에서 "미국 주식의 성장성과 단기 국채의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달러 자산으로 구성한 상품"이라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핵심은 퇴직연금에서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돼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인 70%를 'TIGER 미국S&P 500 ETF'에, 나머지 30%를 이번 상품에

투자하면 전체 자산의 85%는 S&P500, 15%는 미국 단기국채로 구성된다.

두 자산의 비중은 매일 50대 50으로 조정된다.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하락한 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식에만 투자할 때보다 변동성과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을 낮추고 손실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채권 부분은 중장기물이나 아닌 잔존만기 0~1년 미국 국채로 채웠다. 환헤지를 하지 않아 S&P500과 미국 국채 모두 달러에 노출되는 것도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



최근 7월과 8월 두 달간 유통업종 주가의 희비가 엇갈렸다.

/따봉AI

편의점 웃고 백화점 울고… 유통주 '희비'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 등 호재
기준금리 인상·원화 강세 변수

유통업종 주가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7월 1일~8월 31일) BGF리테일 주가는 11만5600원에서 14만7800원으로 27.9% 상승했고, GS리테일도 11.7% 올랐다. 반면 신세계는 46.7%, 현대백화점은 50.8% 급락하며 사실상 반토막 났다. 증권가에서도 편의점 업계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또는 유지했다.

BGF리테일은 7개 증권사 중 6곳이 목표주가를 올렸다. 이 가운데 유진투자증권(21만원)·한화투자증권(21만원)·대신증권 등이 20만원대를 제시했다. GS리테일도 7개 증권사 중 6곳이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특히 IBK투자증권이 기존보다 30% 높은 3만5000원을 제시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렸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의점 산업 재편에 따른 효과와 외국인 인바운드(방한 외국인 관광객 소비) 수요가 견인한 것"이라며 "3분기에도 이익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 편의점 기준점 성장률이 7.5%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점포 체질 개선과 기후 변화, 외국인 수요 3박자가 동시에

작용한 구조적 변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대로 백화점 업계의 목표주가는 하향이 지배적이다.

신세계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7개 증권사 중 5곳이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이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이 95만원에서 68만원으로 28%를 낮췄다. 현대백화점도 7곳 중 1곳을 제외하고 낮춰 잡았다. 본업은 견조했지만 자회사 지누스의 영업적자 267억원이 발목을 잡았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누스는 실적 회복의 가시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지누스 실적 기저가 낮아지며 전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가 낮아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희비가 엇갈린 배경에는 '주식자산 효과'가 있다. 상반기 증시 급등이 고가 상품 소비를 밀어올렸다가 다시 증시 급락 국면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백화점 주가에 직격탄이 났다는 것이다. 편의점은 이 여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 증가라는 자체 동력까지 얻으면서 목표주가 상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점은 변수다. 원화 강세 전환(외국인 소외 감소) 가능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아영 기자 aykim@

증권 CEO들, 유럽서 AI·우주 투자 기회 찾는다

금융투자협회·증권사 14곳 CEO
산업 시찰하고 기관과 협력망 구축

국내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인공지능(AI)부터 디지털채권, 우주산업까지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유럽으로 향한다. 첨단기술의 상용화 현장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망을 넓혀 실제 투자 기회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황성엽 회장과 증권사 14곳의 CEO로 구성된 '증권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이 오는 12일까지 독일과 룩셈부르크를 방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신성장 분야로 떠오른 AI와 디지털금융, 우주산업의 사업화 수준을 점검하고 국내 증권업계의 신규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먼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기술 전시회 'IFA 2026'을 찾는다. AI와 스마트홈,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협회

파별 예정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와 휴머노이드·피지컬 AI, 차세대 모빌리티의 상용화 속도와 시장 확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기술 자체보다 산업 가치사슬과 기업의 수익모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해 새로운 투자 주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금융과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일정을 이어간다. 대표단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외교·통상장관과 만나 양국 금융투자 분야의 협

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룩셈부르크 우주청(LSA)과 유럽우주자원혁신센터(ESRIC), 글로벌 위성통신기업 SES도 방문한다. 위성통신과 우주자원 등 관련 산업의 사업화 현황을 확인하고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살펴볼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 사례도 점검한다.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와 HSBC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채권 발행과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금융 인프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현지 닥테크 창업지원센터인 테크노포트와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럽 신생기업의 기술 상용화 현황을 공유하고 AI·로봇·우주 등 닥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AI와 디지털금융, 우주산업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핵심 성장 분야"라며 "이번 방문이 증권업계가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읽고 미래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